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23	11. 30	12. 07
대 표 기 도	장래환 형제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장래환 형제	윤미경 자매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11월 23일, 30일 주일은 맹기현 목사님께서(Bielefeld 거주)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4. 담임목사 동정 - 한국 방문(장녀 결혼, 18일 출발)
5. 생일 축하 - 효섭 Steinbauer(3일) 윤미경, 유지은(13일) 박준형(17일) 백승민(19일) 임미수, 오세란(25일) 추문경(30일)
6.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박준형 형제, 백승민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1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블로그 : blog.naver.com/bremenhanmin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2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윤선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전 4 : 9 - 12(구p951) (Prediger 4:9~12)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믿음공동체와 동행하는 삶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 주돈혁 형제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칼과 칼집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칼과 칼집이라는 두 축을 갖춰야 합니다.

칼은 콘텐츠 즉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축적한 지식이고, 연마한 실력이며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노하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칼과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왕과 귀족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지만 새로운 국가를 경영해나갈 수 있는 실력의 칼을 다듬어 놓지 않았기에 결국 대혼란의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반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자기를 몰라 준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역사가 기회를 줄 때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틈틈히 쌓아야 합니다.

칼을 실력이라고 할 때 칼집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이 불쑥 빠져 나가서 아무것이나 마구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매미는 한철을 울기 위해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립니다. 식물의 성장도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포가 팽창하고 뿌리가 깊어지는 성장은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주로 잠잘 때 큼니다. 그래서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진짜 병사는 싸우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인내는 무기력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최선의 준비를 끝내 놓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칼과 칼집 / 한 흥 목사(새로운 교회 담임)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도움 받는 신앙에 익숙한가? 도와주는 신앙에 익숙한가?
2. 공동체와 동행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개인적인 습관은?